



도서관 외부에서 정보증개자가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은 사서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과거 사서들은 해답을 찾는 방법을 지시하거나, 해답의 적합성이나 유용성을 평가하지 않고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등의 소극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그 결과 도서관은 전문적인 요구를 가진 이용자로부터 외면당했다. 비록 탐색정보의 응용에 대해서 자문하는 단계까지 서비스를 발전 시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현재보다는 더 고도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예를 들면 단순한 리스트의 제공이 아니라 전문을 제공하며,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자원으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게 재편하여 맞춤형 정보의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주제별 분화와 사서의 주제전문화는 필수적이다.

사실, 내용분석가로서의 사서의 역할은 이미 고대사회 때부터 있었다. 고대 중국의 목록학자들은 문헌을 정리할 때 학문의 원류를 파악할 정도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적 정리방법은 고대 알렉산드리아 왕립도서관의 피나케스 목록에서도 동일하였다. 그러나 내용분석가로서의 사서의 역할은 중세사회에서 현저히 약화되었고, 근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검색도구로서, 문헌의 서지적 사항만을 기록하는 기능적인 형태로 퇴보했다.

정보서비스가 생성된 이후 오늘날까지 사서는 단지 정보를 찾는 방법만 알고 있을 뿐,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지하였다. 오늘날처럼 전문화된 사회에서 이런 피상적 서비스로 어찌 전문직임을 말하며, 상업적 정보서비스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겠는가? 이제 사서들은 요구의 본질인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내용분석가로서의 사서'는 21세기 사서직의 대 명제가 될 것이며, 사서직의 전문성을 고양시키고 존재가치를 높이는 작용을 할 것이다. 